

충남 소상공인 생존율 향상을 위한 연구

이 민 정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초빙책임연구원
minjoung1006@cni.re.kr

본 연구는 타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사례 등을 통해 충남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초연구로, 충남도청 경제정책전환TF 소상공인 분야를 위한 자료제공에 목적이 있음.

CONTENTS

1. 소상공인의 창업과 폐업
2. 충남 소상공인 현황
3. 소상공인 지원방향
4. 소상공인 지원제도
5. 정책제언

요약

- 소상공인은 경제의 모세혈관임. 영세제조(뿌리산업), 유통업이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뿐 아니라, 국민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산업이기 때문임.
- 소상공인은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특성과 과당경쟁에 의해 생존이 치열함.
 - 충남의 신생업체 5년째 생존율은 26.4%로 전국평균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도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부동산및임대업에서 다산다사 양상이 나타남.
- 지역내 수요공급기반 업종별 과밀도를 살펴보면 충남은 운수업과 도매업이 수요가 높은 업종으로 나타남.
 - 이미 공급이 안정된 숙박및음식업, 개인서비스업의 창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컨설팅을 통해 계획적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
- 몇몇 광역지자체에서는 독자적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 중.
 - 충남에서는 현재 신용보증재단(저리융자)과 경제진흥원(컨설팅)으로 이원화되어 지원, 중복업무 발생
 -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일원화한 효율적 지원과, 무엇보다도, 충남 소상공인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가능한 연구 필요

01

소상공인의 창업과 폐업

● 소상공인은 경제의 모세혈관

- 영세제조(뿌리산업), 유통업이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뿐 아니라, 국민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산업이기 때문임.
- 특히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유통업의 경우, ICT(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최근에는 해외직구·역직구 등 새로운 형태의 유통산업이 등장
- 영세제조, 유통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결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음

● 소상공인(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의미 및 범위

-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의 개념에 대한 법률상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닌 자'를 의미하나, 관련기관마다 그 의미가 유사하고 분류범위도 상당부분 겹쳐있는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등을 혼용하고 있음.
- 통계청 정의 (자영업자):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인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합

[표1]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중 자영업자

취업자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주1)	자영업자2)
				무급가족종사자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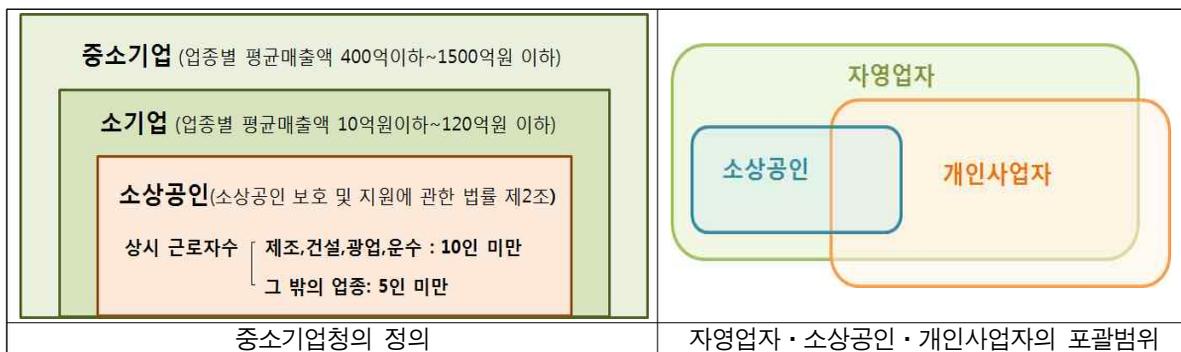
주 1) 유급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주 2) 유급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주 3) 동일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 중소기업청 정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자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6.1.29. 시행)에 근거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동법률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 국세청 정의 (개인사업자): 별도의 상법적 절차가 필요치 않아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일반사업자·간이사업자·면세사업자로 구성
 - * 간이사업자: 직전과세기간 중,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과세사업자
 -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

[그림 1] 소상공인의 범위



자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2016)

● 소상공인의 폐업과 생존

- 소상공인 폐업률은 안정되고 있으나 소상공인 증가로 폐업사업체수 증가
- 소상공인 폐업률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높은 추세를 보임
 - 제조업 평균폐업률(10.8%), 非제조업 평균폐업률(13.9%)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2.9%), 숙박 및 음식점업(21.5%), 교육서비스업(19.4%)등에서 폐업률이 높게 나타남
- 창업 1년후 40.2%가 폐업, 실질적 창업성공률은 30%에 불과
 - 2년째(53.7%) 3년째(62.0%) 4년째(66.6%) 5년째(69.1%)
- 소상공인은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특성과 과당경쟁에 의해 생존이 치열
 - 특히 금융 및 보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다산다사 특징이 크게 나타남

·2012년 기준, 대부분의 업종에서 ‘창업률>폐업률’의 양상을 보인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창업률<폐업률’로 소상공인 감소 중

(표 2) 업종별 소상공인 창업률 및 폐업률(2012년 기준)

구 분	(단위: % %p)		
	창업률(A)	폐업률(B)	GAP(A-B)
전체	14.8	14.4	0.4
제조업	12.1	10.4	1.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9.6	3.3	26.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2.8	11.0	1.8
건설업	10.5	9.2	1.3
도소매업	17.1	16.3	0.8
운수업	7.9	7.7	0.2
숙박및음식점업	20.6	21.5	-0.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4.0	17.9	6.1
금융 및 보험업	24.2	24.1	0.1
부동산 및 임대업	11.6	11.5	0.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9.7	14.6	5.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3.6	19.1	4.5
교육서비스업	21.5	19.4	2.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2	9.3	0.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8	22.9	-3.1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3.4	15.9	-2.5

자료 : 기업생멸행정통계(동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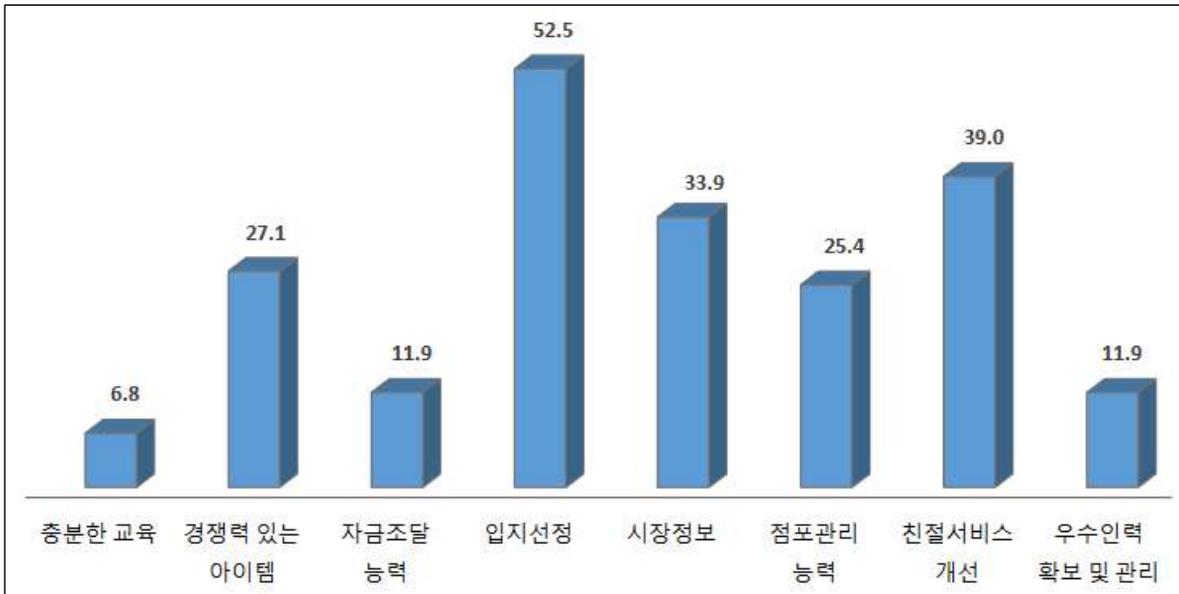
● 소상공인의 폐업 후 업종전환

- 영업이익이 112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폐업을 결정
 - 폐업당시 월평균매출액은 1,051만원(영업이익 112만원 수준) 이익률 10.7%
 - 영업호황기 월평균매출액 2,688만원(영업이익 698만원) 이익률 26.0%
- 순수폐업비용은 138만원
 - 폐업당시 평균 1,588만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채 중 정부자금 303만원(19.1%) 시중자금1,285만원(80.9%)
- 36.5%가 재창업, 음식점·소매 등 과밀분야에서 재창업
 - 재창업 시 모두 음식점업을 제1순위로 선택
- 재창업을 위한 평균 준비기간은 5.1개월, 소요비용은 평균 7,537만원으로 나타남.(한숙영 외, 2014)

· 부채비용은 평균 2,476만원으로 나타남. 2천만원~5천만원 미만이 38%로 가장 많았으나, 부채 없이 재창업하는 비율이 25.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2천만원 미만(20.5%), 5천만원~1억원미만(12.1%)로 나타남.

- 재창업 성공요인으로는 입지선정(52.5%) 서비스개선(39.0%) 시장정보(33.9%) 등을 꼽음

[그림 2] 재창업 성공요인(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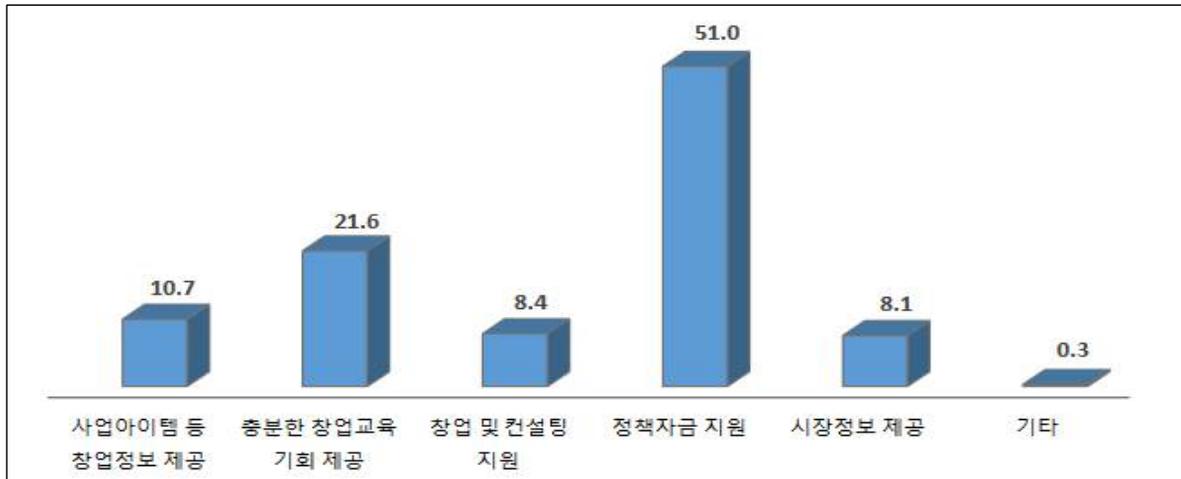


● 정부지원시책(한숙영 외, 2014)

- 이용경험이 없다가 95.4%로 나타남.
 - 부채비용이 높을수록 정부 지원시책 이용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이용한 정부지원시책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교육(50.0%), 컨설팅 (31.3%) 정책자금(25.0%)으로 조사됨.
- 지원시책 효과가 있었다(56.3%), 보통(37.5%), 없었다(6.3%)로 조사되어, 시책의 이용확대가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필요한 정부지원으로는 정책자금지원(51.0%)이 가장 높게 나타남. 특히 최초창업비용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이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창업비용 2천만~4천만미만의 경우, 창업정보제공, 교육기회제공, 시장정보제공 등의 희망비율이 평균보다 더 높음.
 - 4천만~6천만미만의 경우, 교육기회제공, 시장정보제공 희망비율이 더 높음.
 - 6천만~8천만미만의 경우, 교육기회제공, 컨설팅지원, 시장정보제공 희망비율이 더 높음.

- 8천만~1억원미만의 경우, 정책자금지원, 시장정보제공 희망비율이 더 높음.
- 1억원이상일 경우, 창업정보제공, 정책자금지원 희망비율이 더 높음.

[그림 3] 필요한 정부지원시책



02 충남 소상공인 현황

● 충남 소상공인의 비중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2016)는 2014년말 기준으로 충남의 자영업 종사자(자영업자+자영업 고용 근로자)의 비중이 전(全)산업의 31.1%을 차지하여 고용효과가 크다고 분석
- 충남의 자영업 매출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말 기준, 8.3%에 달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충남 소상공인의 추이

- 2014년말 현재, 충남의 소상공인은 23만7천여명(사업체 12만3천여업체)
- 2007년보다 사업체는 약1만7천여 업체(16.1%), 종사자는 약 3만8천여명(18.9%) 증가
*2000년~2006년의 사업체 5.0%, 종사자 4.7% 증가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알 수 있음.

[표3] 충남 소상공인 추이

업종	2007년		2010년		2014년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계	106,033	199,930	108,664	206,819	123,139	237,783
농업,임업및어업	31	92	35	77	34	87
광업	81	283	71	262	95	371
제조업	8,864	23,987	8,627	24,584	10,950	34,155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6	18	15	43	10	19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 생및환경복원업	101	234	96	249	199	465
건설업	3,304	11,368	3,277	10,886	5,115	16,558

도매 및 소매업	32,100	55,769	32,410	57,243	36,246	62,776
운수업	10,057	12,340	10,575	12,745	12,126	14,890
숙박및음식점업	27,199	55,281	27,814	57,308	29,984	60,88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69	374	181	396	400	752
금융및보험업	201	337	210	344	230	359
부동산업및임대업	3,178	4,504	3,358	4,682	3,875	5,55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171	2,592	1,280	2,852	1,748	3,767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 서비스업	649	1,215	763	1,428	1,145	2,095
교육 서비스업	3,688	6,943	3,914	7,352	4,121	7,42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41	3,955	1,497	4,970	1,669	5,47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489	5,957	3,506	5,957	3,508	5,966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504	14,681	11,035	15,441	11,684	16,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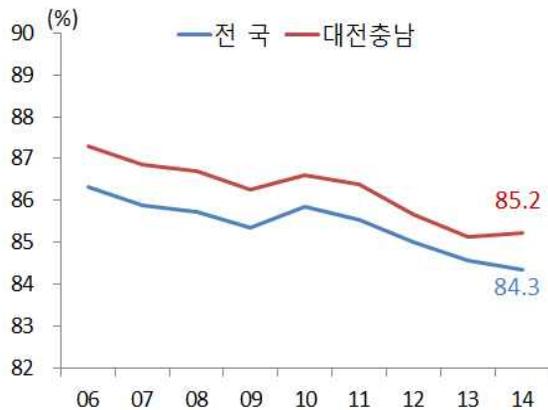
자료) 소상공인마당HP. 통계정보

● 자영업자 수

- 전체 사업체수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전충남지역이 85.2%로 전국평균(84.3%)에 비해 높은 수준(2014년말 기준)
- 동 비중은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하락추이를 보이나, 대전충남지역은 2014년 들어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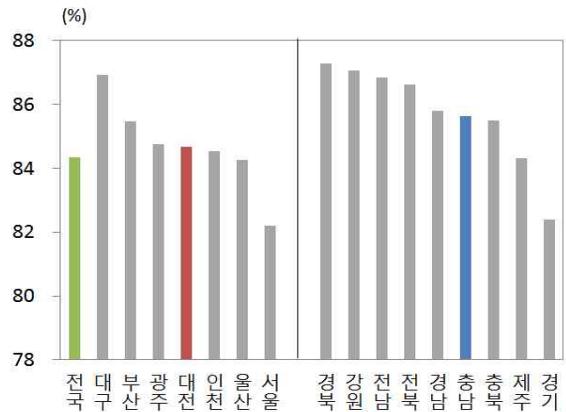
[그림 4] 시도별 자영업자 비중

자영업자 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시도별 자영업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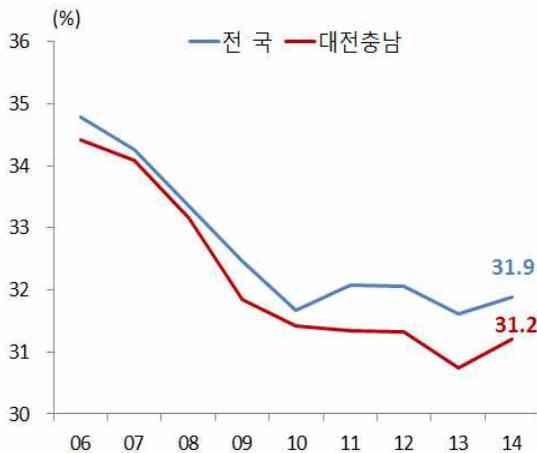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4년)

● 자영업 종사자(고용)

-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자영업 종사자(자영업자+종업원) 비중은 대전충남지역이 31.2%로 전국평균과 유사(2014년말 기준)
- 동 비중은 전국적으로 감소하다가 2014년 들어 증가로 전환
- 저성장 등으로 기업고용이 둔화한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등으로 자영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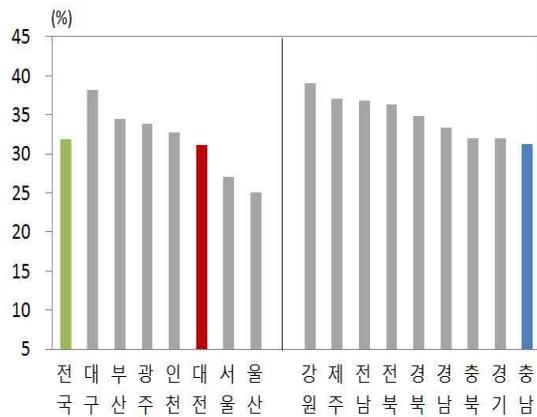
[그림 5] 시도별 자영업종사자 비중

자영업 종사자 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시도별 자영업 종사자 비중 비교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4년)

● 업종별 자영업자 비중

-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 70% 이상이 도소매,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 운수업 등 전통서비스업에 종사하여 업종쏠림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전통서비스업은 내수의존도가 높고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 쏠림현상으로 인해 경쟁이 과열될 경우 자영업자의 영세화 및 폐업위험이 큼.
- [표 3]에서 보듯, 충남 자영업자 전통서비스업 비중(사업체수 기준)은 73.1%로 업종쏠림현상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전통서비스업으로 쏠리는 이유는 적은 투자비용, 짧은 준비기간으로 인해 창업이 비교적 용이하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충남 자영업자 특징

- 2013년 기준, 충남지역 자영업자의 월평균 매출액은 914만원
 - 이는 2010년 대비, 25% 감소한 수준임
- 2013년 기준, 충남지역 자영업자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190만원
 - 2010년 125.8만원 대비 51% 대폭 증가. 매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은 종업원수 감소를 통한 인건비 절감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됨.

● 충남내 신생기업의 생존율 비교

- 2014년 기준, 충남의 기업은 창업 5년째에 26.4%만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존율 : 창업 1년(60.7%), 2년(46.1%), 3년(37.5%), 4년(30.8%)
- 충남은 전국평균 신생기업 생존율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기업생존률 비교

생존율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국	충남												
1년	61.8	59.7	60.9	60.3	60.1	59.8	60.0	59.8	59.8	58.4	60.1	58.9	62.4	60.7
2년	-	-	49.3	47.1	48.1	47.3	46.9	46.6	46.3	45.0	47.3	45.9	47.5	46.1
3년	-	-	-	-	41.5	39.4	39.7	39.1	38.0	37.2	38.2	36.8	38.8	37.5
4년	-	-	-	-	-	-	35.8	33.8	33.4	32.6	32.2	31.5	31.9	30.8
5년	-	-	-	-	-	-	-	-	30.9	28.8	29.0	28.4	27.3	26.4

자료) 기업생멸행정통계 (지역별기업생존율). 통계청

● 충남 산업별 신생기업-소멸기업 추이

- 2014년 기준, 충남에서는 약 3만6천개의 기업이 창업하고 약 3만개의 기업이 폐업함.
- 도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부동산및임대업이 다산다사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표 5] 충남지역 분야별 신생-소멸기업 추이

산업별	2007		2010		2014	
	신생	소멸	신생	소멸	신생	소멸
전체	32,189	23,114	28,803	24,142	36,379	30,853
광공업	1,900	1,510	2,013	1,440	-	-
광업	-	-	-	-	15	21
제조업	-	-	-	-	2,378	1,74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	-	-	326	21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	-	-	48	30
건설업	1,495	1,275	1,682	1,285	1,790	1,375
도소매업	8,086	6,412	7,859	6,780	8,653	7,565
운수업	1,786	1,165	1,719	1,295	1,899	1,508
숙박및음식점업	7,245	6,011	6,776	6,267	8,365	6,652
정보통신 및 금융보험업	290	254	223	173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	-	-	194	142
금융 및 보험업	-	-	-	-	67	57
부동산 및 임대업	6,385	2,949	3,785	3,146	7,385	7,78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350	275	362	268	566	306
사업서비스 및 하수처리업	681	543	681	426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	-	-	770	531
교육서비스업	1,240	674	929	833	1,051	810
보건복지 및 예술스포츠	1,094	844	1,241	1,010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245	132

자료) 기업생멸행정통계 (산업별기업생존율). 통계청

03 소상공인 지원 방향

● 정부 및 금융회사의 개인사업자 지원정책

- 소상공인은 창업, 영업, 휴폐업 단계별로 정부 및 금융회사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과제 활용가능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교육컨설팅 경영 및 기술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 시행

[표 6] 기관별 지원정책내용

[주요기관별 개인사업자 지원내용]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내용]	
운영기관	주요내용	지원사업	내용
중소기업청	자금, 교육, 컨설팅, 상권정보, 업종전환 등	자금지원	소상공인지금, 소공인특화자금 등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활용서비스, 경쟁력강화지원 등	창업직업교육	업종전환교육, 직업전환교육, 실전창업교육, 경영개선교육, e-러닝 등
방송통신위원회	웹보안구축 기술지원, 1인창조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및 관광산업체 융자 등	정보제공	인구, 상권, 밀집정보제공
환경부	환경관련 신기술 지원 등	컨설팅	전국 74개센터 및 분소에서 300여명 창업경영전문가들이 아이템, 입지, 사업계획수립, 마케팅, 정책자금 등 상담지원
국토해양부	중소 해외건설업체 상담교육수주 지원 등		
조달청	소상공인 납품실적 평가완화 등		
방위사업청	기술경영 컨설팅, 군수방산 참여확대 등		
지자체	창업, 기술, 판로(공공구매), 인력지원 등		

자료) KB 경영정보리포트 (2012)

- 금융권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자금지원, 컨설팅, 정보제공
 - 소상공인 우대대출, 프랜차이즈 대출, 점주권 SOHO대출 등 다양한 전용상품 개발
 - 비금융서비스로 은행권에서는 창업, 경영지원, 가업승계 등 경영컨설팅 시행
 - 카드사 등에서 지역별 자영업자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예. 현대 및 삼성카드: 지역상권분석정보 제공, KB경영연구소: 분기별로 전국 서비스자영업 경기동향분석자료 정보제공)

· 소상공인 중 취업희망자는 정부기관(중소기업청, 은퇴자 대상인력 DB 운영)과 지자체, 금융회사(예. KB굿잡) 취업정보 활용 가능

● 소상공인 창업·폐업정책 설계시 고려사항

- 지역내 수요공급 기반 업종별 과밀도를 고려한 재창업 유도

· 지역별 인구수(=수요)와 제품/서비스 공급 종업원수(=공급)를 고려할 때, 주요 소상공인 업종간 편차 발견

· 지역에 따라 상대적 수요가 높은 업종을 파악하여 창업, 폐업시 유도할 필요

{표 7} 종사자 1인당 인구수 (단위: 명)

구분	제조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전국	13.0	17.1	49.0	24.8	54.0
서울	35.6	11.8	38.8	21.8	48.4
부산	16.3	15.8	32.7	23.7	49.9
대구	14.2	17.2	55.0	27.4	55.3
인천	12.3	22.4	40.5	29.9	64.4
광주	18.0	16.7	55.2	27.2	49.1
대전	26.1	17.7	54.2	26.1	53.0
울산	6.3	21.9	50.3	24.2	60.7
세종	8.7	30.9	68.5	27.2	74.9
경기	10.2	19.5	55.9	28.7	61.7
강원	29.6	18.9	60.1	16.6	48.8
충북	8.8	20.7	58.8	24.7	52.7
충남	7.8	20.8	65.8	24.5	52.8
전북	15.6	19.3	58.4	27.3	51.0
전남	17.0	20.1	56.8	26.5	51.7
경북	8.4	21.6	65.0	24.8	51.1
경남	7.7	20.8	59.0	23.7	55.3
제주	60.3	15.1	45.7	13.9	49.2

자료) 2014년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시도주민등록인구, 통계청.

- 제조업은 울산·경남·충남에서 높은 공급을, 제주·서울·강원에서 높은 수요를 보임.

제주	서울	강원	대전	광주	전남	부산	전북	대구	인천	경기	충북	세종	경북	충남	경남	울산
← 수요 高														공급 高→		

- 도소매업은 서울·제주·부산에서 높은 공급을, 세종·인천·울산에서 높은 수요를 보임. 충남은 수요가 약간 높은 지역에 속함.

세종	인천	울산	경북	충남	경남	충북	전남	경기	전북	강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제주	서울
← 수요 高														공급 高→		

- 운수업은 세종·충남·경북에서 높은 수요를, 부산·서울·인천에서 높은 공급을 보임

세종	충남	경북	강원	경남	충북	전북	전남	경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제주	인천	서울	부산
← 수요 高														공급 高→		

- 숙박및음식점업은 인천·경기·전북에서 높은 수요를, 제주·강원·서울에서 높은 공급을 보임.

인천	경기	전북	대구	세종	광주	전남	대전	경북	충북	충남	울산	경남	부산	서울	강원	제주
← 수요 高														공급 高→		

- 개인서비스업은 세종·인천·경기에서 높은 수요를, 서울·강원·광주에서 높은 공급을 보임.

세종	인천	경기	울산	경남	대구	대전	충남	충북	전남	경북	전북	부산	제주	광주	강원	서울
← 수요 高														공급 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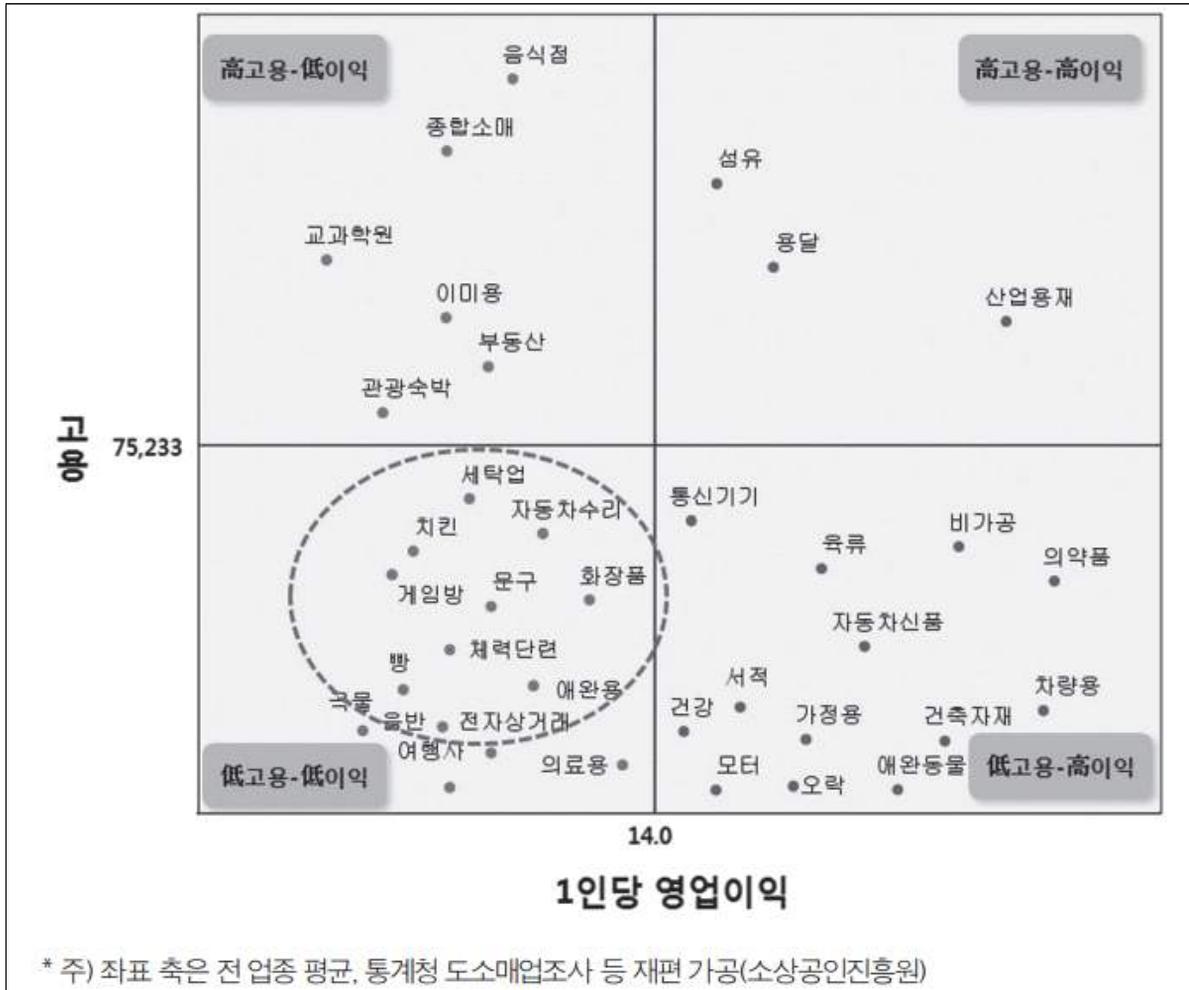
- 종합하면, 충남의 경우, 수요가 높은 운수업, 도소매업 창업을 유도하고, 수요-공급이 안정된 숙박및음식업, 개인서비스업의 창업을 피하는 등의 정책적 유도 필요.

- 유망업종에는 전환비용(Switching cost)을 상회하는 지원 필요

- 과당경쟁업종에서 유망업종으로 전환을 위한 동기부여 마련
- 보조용자 등을 통해 재무적 전환비용 지원, 절차적·관계적 전환비용을 위한 시간단축, 정보제공, 컨설팅 등의 지원방안 마련

- 소상공인 대표업종(36개)의 고용과 1인당 영업이익의 연관성을 분석한 [그림 6]에서 低고용-低이익, 高고용-低이익 분면의 업종 개입회피 등 정책적 유도 및 맞춤형 정책추진 필요

(그림 6) 최근 3년간 업종별 고용과 1인당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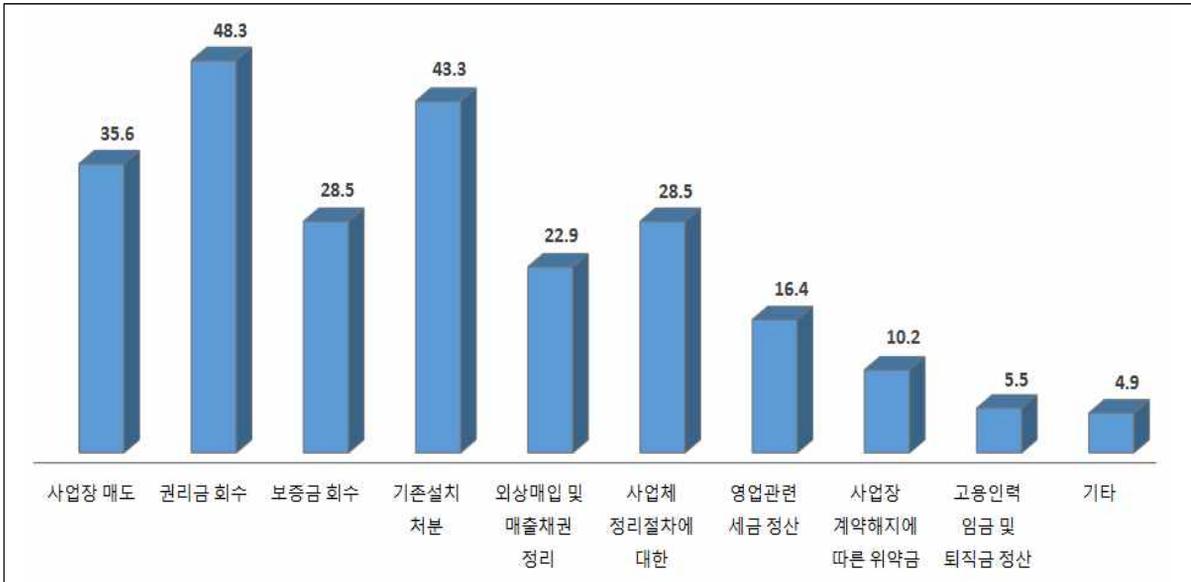
* 주) 좌표 축은 전 업종 평균,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등 재편 가공(소상공인진흥원)

자료) 이윤보 외, 2013.

● 폐업관련 희망 정부정책(한숙영 외,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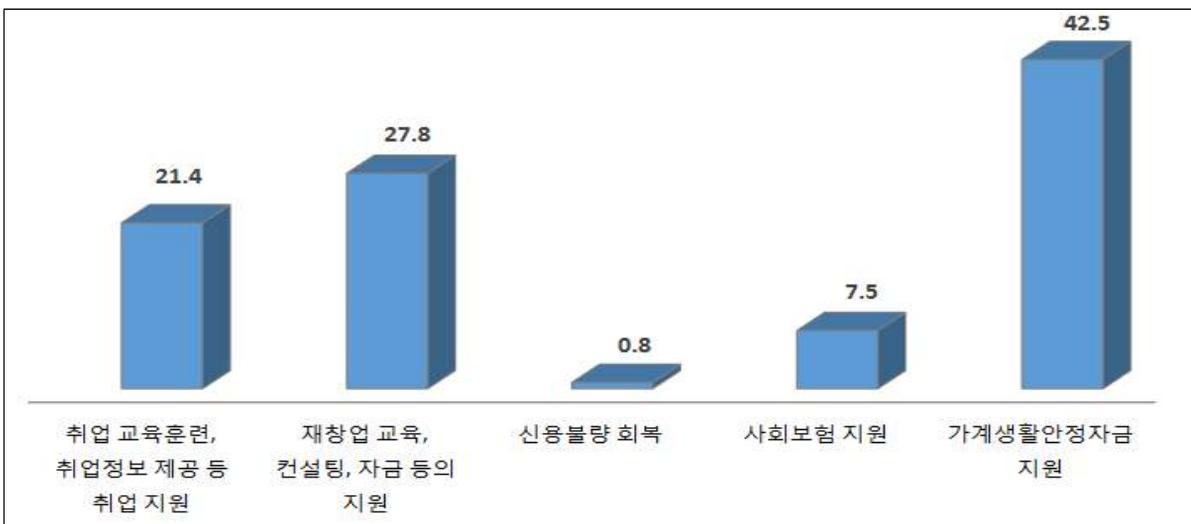
- 창업부터 폐업까지 총 부채비용(1금융권+2금융권+친구/친척+사채 등)은 평균 2,385만원
- 폐업시 어려운 점으로 권리금 회수(48.3%) 기존설치 처분(43.3%) 사업장매도(35.6%) 등을 들었음.
 - 창업비용별로 보면, 최초창업비용이 8천만~1억원일 경우 '외상매입 및 매출채권정리'가 전체평균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고, 4천만~6천만원일 경우는 '권리금회수' '사업체 정리절차'에 대한 정보부족이 높게 나타남.

[그림 7] 폐업시 애로사항(중복응답)



- 폐업후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으로는 가계생활 안정자금 지원(42.5%)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현재 재창업(경험)자의 경우, '사회보험지원'이 전체평균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재창업교육·컨설팅·자금지원'은 전체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총부채비용별로 보면, 부채비용이 낮을수록 '취업 및 재창업 등을 위한 정부지원정책'을 필요로 하며, 부채비용이 높을수록 사회보험 및 자금지원의 필요도가 높음.

[그림 8] 폐업후 필요한 정부정책



04 소상공인 지원제도

● 부처별 소상공인관련 창업지원제도

- 소상공인 창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창업촉진을 위한 사업을 중기청 포함 여러부처에서 추진 중.

[표 8] 부처별 창업지원제도(2013년 기준)

부처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자금	컨설팅 교육	인프라 등	
중소기업청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일반	● (보증)			1인당 최고 5천만원
	성공창업패키지 교육	일반	●	●		
	소상공인창업학교	일반		●		
	창업아카데미	일반		●		
	시니어 창업역량 강화교육	시니어(퇴직자)		●		
	시니어 비즈플라자	시니어(퇴직자)		●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사업	산재근로자	●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창업형일자리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			1개소당 5천만원 이내
여성가족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여성가장	●	●		
	한부모 여성가家主 창업지원사업	여성가家主				1인당 최대 4천만원
	성매매피해자 창업자금지원사업	피해여성	●	●		1인당 3천만원(1년거치, 3년상환)
	취창업교육(새일센터)	여성	●	●	●	121개센터
국가보훈처	전역예정자 전직 기본교육(제대군인지원 센터)	제대군인	●	●	●	2700명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4.

- 중기청 대상은 일반국민, 타부처의 경우 부처별 정책수혜집단을 대상으로 추진
 - 여러사업간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방식 등은 대동소이
 - 1점포 창업 소요자금(임차보증금 및 시설비용 등) 상한으로 3~4천만원 지원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운영 사례 (4/26 발표자료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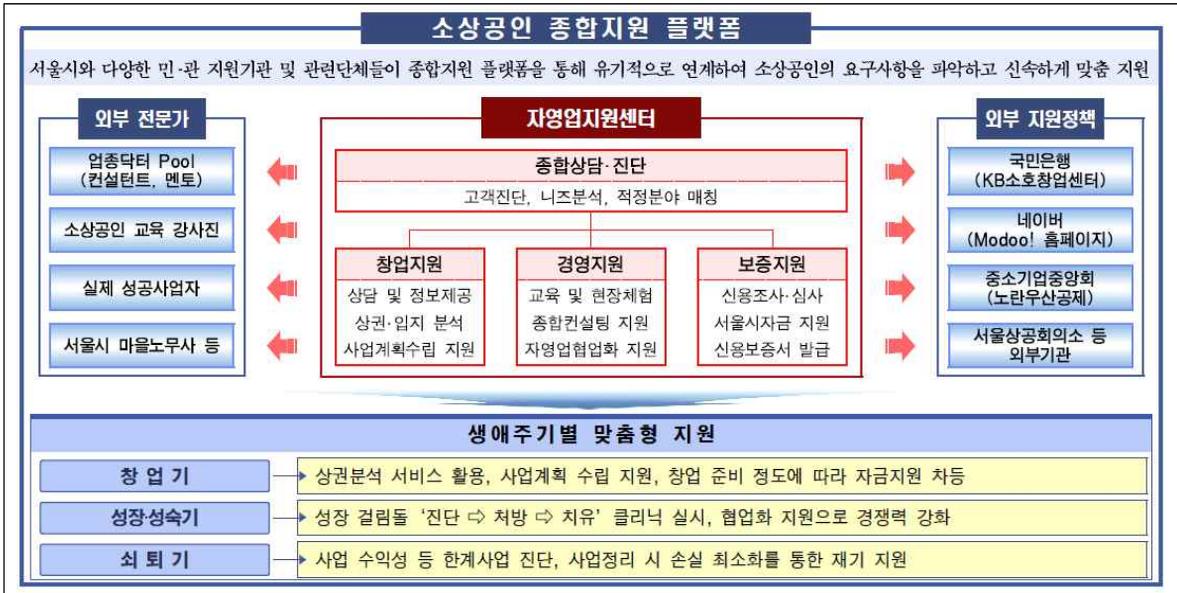
- 2006년 설립이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소상공인지원의 패러다임 변화
 - 기존 지원형태
 - 1)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정책이 여러기관에 분산되어 실행
 - 2) 4개권역별 센터로 분리되어 체계적 종합지원에 한계 노정
 - 3) 다른 지원기관과 차별화된 재단만의 특색있는 지원정책 부재
 - 4) 신용보증, 회생지원업무가 분리되어 개별사업별 컨설팅 중심 지원
 - 2017년 사업예산: 5,357백만원

[표 9]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지원체계의 패러다임 변화

분야	기존	변경
지원체계	개별기관별, 정책별 지원 실시 - 재단자체 지원사업만 단독추진 - 다양한 소상공인 니즈 해결 한계	소상공인 지원의 모든 것을 한곳으로 집중 - 실제사업운영자 등 외부전문가 확보 - 유관기관 협약체결 통해 협업 추진
(예비)창업자 지원	소상공인 창업의사결정에 재단역할 비흡 - 사업장계약, 사업자등록 후 컨설팅 실시 - 창업이후 초기안정화지원에 치중	창업진입규제에 재단역할 강화 - 골목상권분석서비스, 일자리지원 연계 - 창업전단계부터 컨설팅 실시
기존사업자 지원	컨설팅과 신용보증의 연계미흡 - 별개사업으로 추진 - 직군별 업무수행으로 연계인식 부족	컨설팅과 신용보증의 연계강화 - 자금을 매개로 경영개선 유도 - 직군별 업무연계 확대로 전사적 역량 결집
한계사업자 지원	한계사업자에 대한 지원정책 부재 - 소상공인 시장퇴출에 대한 정책공백	원활한 사업정리를 통한 재기지원 - 생애주기 전단계 지원체계 확립 - 업종전환, 일자리 등 연계(사회안전망 역할)
고객과의 관계	일회성, 단절적 관계 - 컨설팅, 신용보증고객과의 네트워크 부재 - 일회성지원으로 지속적 관계형성 미흡	모바일 기반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 온라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활용 - 수동적 업무처리 탈피, 적극적 니즈해결
사업추진방법	개별기업 단위 지원 - 상권단위 지원사업 추진 부재 - 개별기업 미시적문제에 치중	지역별 업종별 종합지원사업 추진 - 골목상권단위의 종합지원 및 성과검증 - 업종별 협업지원으로 우수모델 발굴

- 2016년 7월부터 외부 전문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개시.

[그림 8] 서울자영업지원센터 지원체계



- 6개팀, 총 45명 구성



- 외부전문가 연계협업

- 업종닥터 211명의 풀(pool) 구성
- 업종별 고수로 구성된 100여명의 소상공인 경영지원단 (활동예정)

- 유관기관 업무연계 협약체결

- 서울상공회의소 (상담, 정보제공), 서울디자인재단(자영업협업화), 네이버(교육, 정보제공, 모바일홈페이지 제작), 매일경제신문(홍보), 오픈더테이블(컨설팅), 한국 M&A협회(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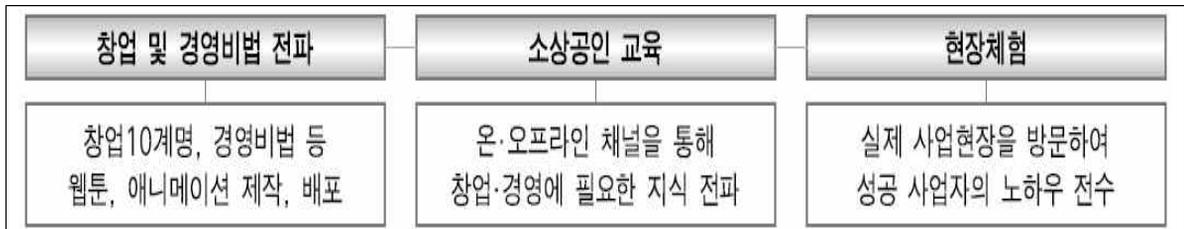
육, 컨설팅),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교육, 컨설팅), 중소기업중앙회 (상담, 정보제공), 국민은행(상담, 컨설팅),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상담, 정보제공)

- 주요업무

1) 창업 및 경영지원에 관한 종합상담, 정보제공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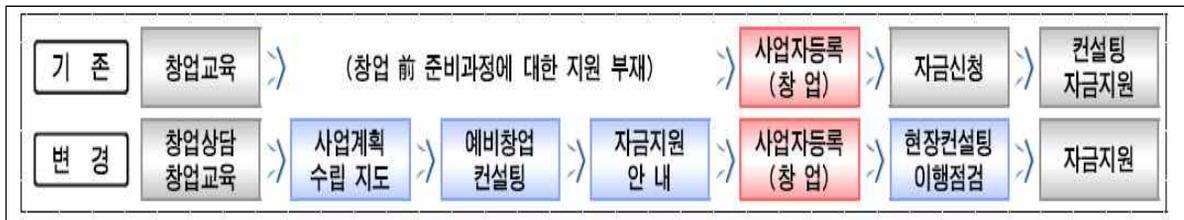
단계	주요포인트	상담, 진단방향
창업희망	- 창업동기, 예비창업자 역량진단	- 자영업실태, 업종·상권동향, 창업전 필수준비사항 등
창업준비	- 사업계획 타당성 및 창업준비정도	- 시장, 고객, 상권·입지분석 및 사업계획 수립
창업초기	- 사업운영, 경영관리	- 마케팅, 고객관리, 홍보, 원재료, 원가, 시설, 종업원 등
사업확장	- 투자타당성 및 투자전략	- 시장분석, 경쟁력분석, 투자대비 수익, 자금조달 등 지도
사업부진	- 경영진단 및 문제점 도출	- 문제 유형별 해결방안 처방, 내외부 전문가 협업지원
사업정리	- 사업타당성 및 사업정리 전략 수립	- 사업정리절차, 재취업상담, 신용회복방안 등

2)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역량강화



3) 온오프라인 소상공인 교육

4) 창업컨설팅 및 자금지원



5) 자영업클리닉 지원 : 생계밀집형 17개업종 운영 소상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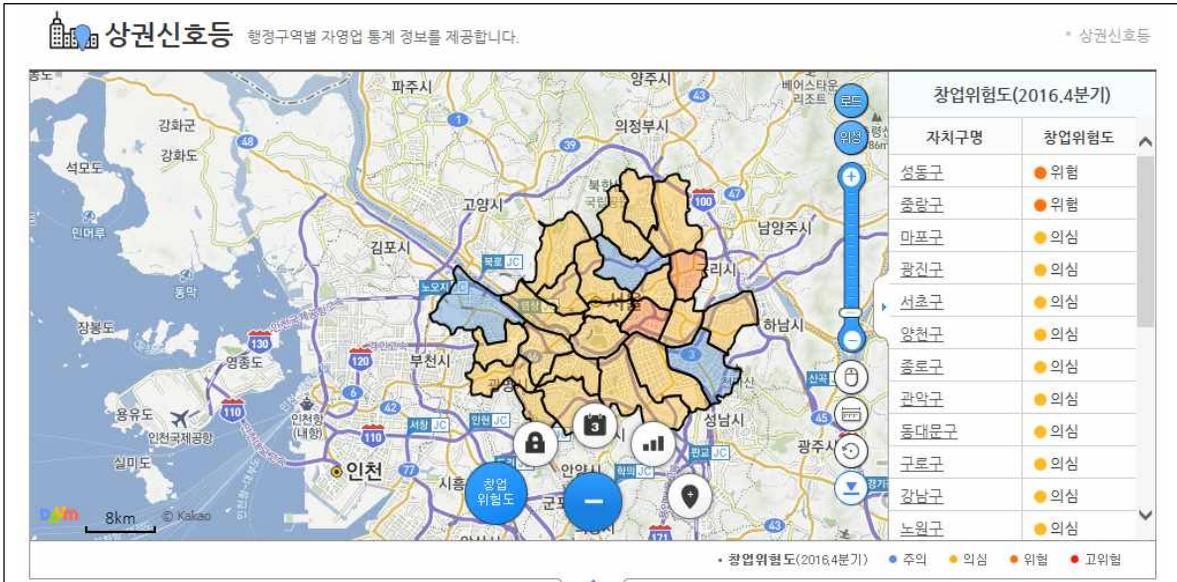
6) 자영업협업화 지원: 자영업자간 공동이익을 위해 서울시 소재 3개이상

자영업자로 구성된 협업체에 지원

7) 한계소상공인 지원

- 특색 사업 :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http://golmok.seoul.go.kr>)

1) 상권신호등



2) 창업위험지표

창업 위험 지표 (43개 전체 업종 기준, 16년 4분기, 증감률 : 전년 동 분기 대비) ? 데이터기준 상권신호등 > 창업위험지표

행정구역명	신규창업위험도	폐업신고율(전년동분기)	3년 간 개업 대비 폐업신고율(전년동분기)	평균 폐업기간	점포증감률
+ 강남구	● 의심	3.2% (2.2%)	19.5% (15.8%)	2.6년	15.5%
+ 강동구	● 의심	2.7% (2.4%)	20% (14.1%)	2.6년	12.6%
+ 강북구	● 의심	2.3% (1.4%)	13.7% (12.3%)	2.7년	5.2%
+ 강서구	● 주의	2.2% (2.3%)	15.2% (14.7%)	2.7년	8.5%
+ 관악구	● 의심	3.2% (2.2%)	18.5% (15.4%)	2.7년	8%
+ 광진구	● 의심	2.9% (2.1%)	14.7% (14.3%)	2.7년	14.7%

3) 상권검색

1단계: 관심업종 선택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전체업종
한식음식점	일식집	분식집	치킨집
중국집	양식집	패스트푸드점	계과점
			호프간이주점
			커피음료

2단계: 관심지역 선택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자치구	신규창업위험도 (43개 전체 업종 기준)	폐업률(%)	3년 이상 생존율(%)	거래 증감률(%)	골목상권수		
3단계: 상권조건 선택	▾ 상권 내 경쟁점포 탐색(선택업종기준)				▾ 상권 내 유동인구 탐색			
	구간	최소	평균	최대	구간	최소	평균	최대
	점포수	0	0	0	인구수	186	18,020	35,853
	조건입력	최소점포수 개 ~ 최대점포수 개			조건입력	최소인구수 명 ~ 최대인구수 명		
▾ 배후지 가구수 탐색				▾ 배후지 직장인구 탐색				
구간	최소	평균	최대	구간	최소	평균	최대	
가구수	1,898	34,454	67,009	인구수	1,289	59,937	118,585	
조건입력	최소가구수 가구 ~ 최대가구수 가구			조건입력	최소인구수 명 ~ 최대인구수 명			

05 정책제언

- 저성장기의 유통산업을 동반성장산업으로 변모해야
 - 소비자 후생만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대형마트의 확산이 바람직할 것임.
 - 하지만, 전국 700만명에 이르는 생계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중심인 전통시장의 축소는 단순히 자영업자의 실업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 골목상권의 침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사회 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전(全)산업 종사자 중 소상공인의 비중이 37.9%에 이룸.

-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방향
 - 대형유통점 입점시 고용영향평가 계획 실시
 - 지자체는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역고용 관점에서 대형마트 입점 평가해야 함.

[표 9] 대형유통점의 지역 상생방법(案)

지역제품 구매	지역서비스 구매	시간/공간 규제	지역고용 및 노동
지역상품 의무구매	청소, 주차 등 용역	영업시간 제한	청년고용 할당
	배달, MRO	자투리공간 활용	이·전직자 고용
일부상품 구매제한	지역사업 활성화 지원	거리 규제	휴무 및 근로시간
		매장일부공간 기부	이·전직 교육훈련

자료) 이윤보 외, 2013.

- 소상공인은 유연성, 창의성, 혁신DNA에서 대형마트에 앞설 것임.
- 대기업이 상생을 위한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이 틈새기술 개발 등의 혁신을 접목하면 상생효과가 일어나듯, 대형마트 안에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 설치, 지역연계상품 공동개발, 지역인력 우선채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협력,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 함

- 한편 골목상권, 소상공인은 유통산업 변화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처하여 자생력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
- 편의성을 기반으로 반품, AS, 정찰제, 신용카드 결제, 마을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 마을행사 적극참여 등 소비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서비스 제공 필요.

● 소상공인(생활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진방향(소상공인진흥원, 2013)

- 지역상권단위 소상공인 생태계 구축을 통한 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환경 조성
- 지역브랜드 및 PB제품 개발을 통한 소상공인 상품력 강화
 - 예. 소상공인 점포 잉여공간을 활용한 shop-in-shop 구축 등 기능복합화
- 소상공인 주도의 창의적 비즈니스모델 발굴-적용검증-확산 지원
- 상권별 ‘소상공인 수요예측 기반 운영관리 시스템’ 개발보급
- 온오프라인 공동구매 서비스 지원을 통한 원가경쟁력 제고

[그림 9] 소상공인 정책방향



자료) 이윤보 외, 2013.

- 이원화되어있는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일원화할 필요있음

- 서울시의 경우, 자영업지원센터에서 독자적 사업 실행, 기관내 부서간 협업을 통해 효과 제고
- 시군의 경우, 소상공인 담당부서가 업종 성격에 따라 여러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예. 이미용업, 식품업 등- 위생과), 도 차원에서는 이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조직 필요
- 더불어, 실태파악 등 연구를 통한 충남 소상공인의 컨설팅 방향성 정립 필요

- 소상공인진흥원. 2013. 소상공인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4.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6. “대전충남 자영업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한숙영 외. 2014. 자영업자 폐업 실태조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
- 남윤형. 2016. 소상공인 회전문창업 실태와 해법의 실마리. 중소기업연구원 KOSBI 제 16-3호.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2. 개인사업자 창폐업특성 및 현황분석. KB경영정보리포트.
- 이윤보 외, 2013. 우리경제의 싹틔줄-소상공인을 살리는 길. (재)행복세상, 소상공인 정책보고서